

TRACK G · 가족·지원자용

대리·연락·이상 신호 점검표

본인의 의사와 권리를 먼저 존중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범위와 긴급할 때의 역할을 미리 정합니다.

기본 원칙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대신 보관하거나 본인 몰래 거래하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필요한 범위와 기간만 기록합니다.

1. 평소에 함께 정할 것

- ☐ 본인이 직접 할 일, 함께 확인할 일, 법적 대리권이 필요한 일을 구분했습니다.
- ☐ 가족·지원자의 이름과 연락 순서를 본인과 함께 정했습니다.
- ☐ 금융회사·경찰·공공기관의 공식 번호를 상대방이 알려 준 번호와 구분해 보관했습니다.
- ☐ 자산·부채·보험·중요서류의 존재와 보관 위치만 기록하고 비밀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 ☐ 정기결제·계좌연결·카드 사용내역을 본인과 함께 확인하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 ☐ 위임·대리·후견이 필요할 때는 권한 범위와 종료 조건을 공식 절차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 이상 신호

- ☐ 지금 당장 송금·현금 전달·앱 설치를 요구합니다.
- ☐ 수사기관·금융회사·가족이라며 비밀을 지키라고 합니다.
- ☐ 화면공유·원격제어·접근성 권한 또는 인증번호를 요구합니다.
- ☐ 투자금·세금·보증금·등급비를 더 내야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 ☐ 평소와 다른 큰 이체·반복 인출·새 대출·명의 변경이 보입니다.
- ☐ 특정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가 통장·카드·휴대전화를 독점하고 설명을 막습니다.

긴급할 때 역할을 나누세요

판단을 오래 하기보다 정해 둔 순서를 그대로 실행합니다.

본인이 할 행동 전화를 끊고, 링크를 누르지 않고, 송금·현금 전달·앱 조작을 멈춥니다.
상대방이 알려 준 번호로 다시 걸지 않습니다.

가족·지원자가 할 행동 다른 안전한 기기에서 금융회사·경찰 등 공식 번호를 직접 찾아 연락합니다.
본인의 말을 먼저 듣고 추가 접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함께 남길 기록 통화·문자·계정명·송금 시각·금액·금융회사 신고 시각을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기록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으면 먼저 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피해 직후 확인

- ☐ 진행 중인 범죄·협박·현금 전달은 112에 즉시 알립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담·신고·제보는 1394, 송금 피해는 거래 금융회사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 악성앱·해킹이 의심되면 감염이 의심되는 기기에서 검색·인증을 계속하지 않고 KISA 118 등 공식 도움을 이용합니다.
- ☐ 원본 메시지와 거래기록을 삭제·수정하지 않습니다.
- ☐ 본인의 의사능력과 권리침해가 우려되면 금융회사·경찰·법률·복지기관의 공식 상담을 구분해 연결합니다.

연결 학습 G1-04 재산관리·대리·후견 준비 · G2-01 전화가 오면 끊고 다시 확인 · G2-04 피해 직후 행동 · 공통 EDU-01·11·15

이 자료는 일반 교육용 점검표이며 개별 대리·후견·상속·피해구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 직전에는 관계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와 필요한 법적 절차를 확인하세요.